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 도 자 료
희망의 대한민국
http://www.motie.go.kr

**2015년 9월 2일(수) 조간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.1일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가능)
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과장 천영길(044-203-4510), 박두강 사무관(4503)

# 산업용 연구장비 공동이용시스템 이튜브(e-Tube) 성과 보여

**- 중복장비 구매차단, 경쟁입찰 등으로 약 480억원 예산절감**
**- 장비 부정구매 건수 큰폭 감소, 장비가동률도 10%p 증가**
**- 2014년 정부 3.0 우수사례로 선정**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윤상직)는 연구장비 도입심의 강화를 통해 중복 장비 구매를 억제하고, 경쟁입찰 시행, 노후장비 이전·재배치로 전체 약 48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.

○ 산업부는 지난 2011년 개별 연구개발(이하 R&D)전담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장비도입심의를 '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장비관리센터'로 일원화하고 3천만원이상 장비의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및 공개경쟁입찰을 전면 도입하였다.

- 이를 통해 342억원*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, 장비 구매 관련 R&D자금 부정사용건수도 크게 감소**한 것으로 분석되었다.

* 장비도입부결 환산금액(304억원) 및 경쟁입찰 낙찰차액(38억원)

** 장비구매 관련 부정사용건수 현황 : ('13년) 8건 → ('14년) 4건 → ('15.7월) 1건

- 또한 '14년부터 노후장비 이전·재배치사업을 통해 약 143대의 장비를 타 기관으로 이전해 138억원*의 예산을 절약하였다.

* 143대를 신규 구축하게 될 경우, 장비 구축비용 환산금액



□ 산업부는 이와같이 연구장비 도입심의부터 구매·활용·폐기단계에 이르는 장비 전주기에 걸쳐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연구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인 이튜브(e-Tube/www.etube.re.kr)를 지난 2013. 11월 개통한 바 있다.

○ 이튜브(e-Tube: equipment-Tube)는 기존 장비 공동 활용 수준에 머물던 인프라넷(InfraNet)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서 산업계 연구장비 구축·활용의 대표적인 포털 시스템이다.

| 인프라텟(InfraNet)공동활용, '01년 오픈) | 이튜브(e-Tube)('13.11월 오픈, 3,449개 기관, 5만여대 전주기관리) |
|---|---|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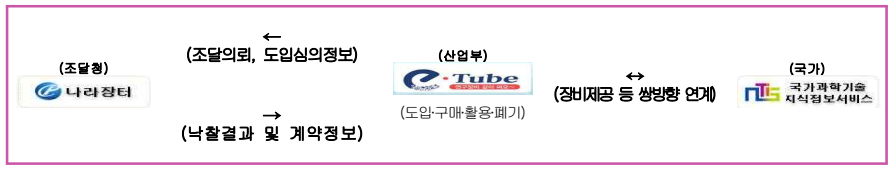

- 여기에는 출연연, 테크노파크, 대학 등 범부처 관련 R&D기관들 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(렌탈)기업까지 포함하여 3,449개 기관의 연구·시제품 제작·인증 등에 필요한 장비 약 5만여 대가 구축되어있다.

- 산업부는 매주 약 5천여명이 동 시스템을 방문하여 장비 사용자가 손쉽게 장비를 탐색·활용하게 됨에 따라 공동활용장비 가동률이 크게 개선된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였다.

* '12년도 46% → '14년도 55.7%(KEIT 설문조사, '15.7)

○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동 시스템은 '14년에 3.0관련 정부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'15.4월 정부 3.0 컨텐츠 박람회에 전시되기도 하였다.

○ 아울러 산업부는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조달청 나라장터와 이튜브(e-Tube)를 연계해 외자구매까지 전자입찰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장비구매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


□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앙장비도입심의를 받지 않거나,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장비를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.

○ 산업부는 작년 '장비통합관리요령'제정('14. 4)이후 3천만 원 이상 장비의 도입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장비 구매한 건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되, 재심의에서 부결된 장비는 전액 사업비 불인정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.

○ 그리고 이러한 도입심의나 경쟁입찰을 회피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중앙장비심의를 통과하였거나, 경쟁입찰을 실시한 장비에 대해서만 연구비관리시스템(RCMS)상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였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박두강 사무관(☎ 044-203-450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**참고** | **장비 공동이용 시스템(e-Tube)현황**

○ 연구개발장비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**필요한 장비는 온라인을 통해 바로 예약**하는 e-Tube시스템 오픈('13.11월 개시)

< e-Tube내 R&D장비 구축 현황 ('15.8월 기준) >

| 구 분 | 연구기관 | 대 학 | 기 업 | 협 회 등 | 합 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공동활용 | 12,142 | 4,239 | 1,299 | 262 | 17,942 |
| 단독활용 | 5,597 | 1,717 | 5,139 | 166 | 12,619 |
| 합계 | 17,739 | 5,956 | 6,438 | 428 | **30,561** |

* **e-Tube內 민간렌탈장비** : 897종 19,871대 등록하여 **구매보다 임대 유도**

○ **장비 도입부터 폐기**까지 **전주기**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

* 전주기 관리 : 기획→도입심의→구매(전자입찰)→공동활용→유휴장비 이전

○ e-Tube 오픈 후 방문자는 크게 증가추세에 있으며, 현재('15.8월) **누적방문자는 37만명**(R&D를 수행하는 **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이용** 가능)

○ **조달청 나라장터와 연계** 하여 **구매 과정의 투명성** 강화예정('15.9월~)

**< e-Tube포털(www.etube.re.kr) 및 사용 개념도>**

